

# 사 명

1064. 관상자들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싸우는 동안 기도하고,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침묵 안에 생명과 빛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에서 매우 섬세하고 중대한 사명을 물려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받은 몫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관상생활은 교회의 심장으로서 더욱 힘차게 박동하며 새로운 피를 축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질식하지 않고 그들이 존엄성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호흡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내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몸집에 허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가 아무리 튼튼한 팔뚝을 지니고 힘있는 근육을 지녔던들, 그의 생명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심장이 멈춰 버린다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려 앓을 것입니다 ...

관상자는 하느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밤낮으로 형제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느님의 친구들입니다. 이는 하느님과 세상 모든 이를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이 관상생활입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향해 너무 분노하시지 않도록 하늘과 우정의 계약을 맺으며, 땅을 밟고 하늘과 대화하는 신비스런 사다리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힘겨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 일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안됩니다.

바로 6세 교황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일의 정점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지칠 줄 모르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본성은 너무도 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탈출기를 읽어 보셨습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산 위에 사는 삶, 이것이 관상생활입니다. 초원의 삶이 아닌, 산의 삶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초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의 하느님입니다. 그분의 관상자들은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1065. 나는 수도원의 삶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초월성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늘 바래 왔습니다.

이는 내가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항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 나는 좀더 고요하고 성숙하며 또 무르익고 책임감 있는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진리의 빛으로 명백히 바라봅니다.

수도원에 사는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된 갈망에는 그 자체로 그 갈망을 실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들이 우리 영혼을 불 태울 수 있을 정도까지 진실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은 구성원 모두의 총합체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도원 구성원 각자가 수도원의 생존이 자기 혼자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굳건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내어 준다면... 모두가 더 충만한 색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1066.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마음의 눈으로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보는 것을 배운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느님이 되어 준 것이지요.

1067.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 생명의 꽃이 피어 납니다. 만년설도 따스한 태양에 녹아 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대에게 있는 빛과 기쁨, 사랑의 가능성을 닫아 버리지 마십시오. 늘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대와 다른 모든 이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68. 비밀은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끌어 안으십시오. 그러나 그 생명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의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는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불 속으로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되십시오. 이제 그대의 것이 된 그 생명 안에서 하느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69. 깨어나십시오! 중대한 사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대의 사명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으십시오. 그대의 손에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깨어나 사랑과 부드러움, 온유함과 선한 것으로 눈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대의 눈이 점점 더 하느님의 신비로, 교회로, 모든 사람들에게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어둠 속에 잠들었다가 빛 가운데 깨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1070. 그대의 사명은 사랑의 사명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적인

사명입니까! 천국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심는 것을 꿈꾸십시오. 이 지상에서부터 사랑과 일치, 깊은 우정과 넘치는 기쁨을 뿌리며 살아가십시오.

1071. 예수님은 영원한 사제이십니다. 나자렛의 침묵으로, 헤아릴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나자렛의 드러나지 않는 수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고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실현하시는 그분의 숨은 사제직에, 고요하고 감동적인 그분의 희생 제사에 저를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1072. 나의 사명은 그분의 사명 안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침묵과 어둠 속에서 이를 완수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격리된 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삶 속에 간직된 소중한 보화를 앗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격리된 채,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1073. 우리의 삶이 사명의 역사가 아니라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원으로부터 계획되어 시간을 향해 당겨진 그 사명의 역사를 놓도 질게 사십시오. 그 계획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계획이 그대 존재의 과녁을 명중하게 하십시오.

1074.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만큼의 용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수 많은 이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상입니다. 우리 생명을 바치기 위해 이 보다 더 위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75. 하늘과 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그대 존재 전체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가며 하느님으로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가 잘 버려진 날카로운 화살처럼 되어야 합니다.

1076.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요? 하느님께서 모든 스타일의 성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항심 많은 이들이 치러야 할 모험, 그 모험을 그대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대 안에서 반항의 역사가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사명입니까! 또 얼마나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이며, 위대하고 강렬한 사명입니까!

사랑으로 하느님 안에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대 안에 쌓인 온갖 반항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 어깨 위에 지워진 우주의 무게를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과 함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지고 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가신 것과 같이, 그대도 사랑으로 그것을 지고 가십시오.

1077. 각각의 영혼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스런 사명과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 신적 메시지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책으로 쓰여진 그 어떤 훌륭한 말이나 강연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1078. 하늘과 땅 사이에... 무한하신 분께 매달린 채... 그분 영광 안에 싸여... 영혼은 감격에 떨며 지극한 그분 사랑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찬미 드리고 그분 진리의 속삭임, 기쁨의 메아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79. 하느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잊고 투신하는 영혼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증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그대에게 주신 이 시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으로 강렬하고 결정적인 사랑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대의 시간입니다.

1080. 그대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타인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사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사명은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081. 우리가 서약한 삶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약속은 모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그대의 삶이 온전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과 통합하고 이웃과 하나되는 사명입니다. 언제나 하나로 모이고 일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낙관주의와 넘치는 기쁨, 불굴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남기며 걸어 가십시오. 사람들이 그대가 앞서 지나간 자리를 지나갈 때, 사랑은 정말 존재한다는 것, 또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82. 우리 수도원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각 수녀들은 수도원의 이름과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요구들을 자신의 삶으로 육화시켜야 합니다.

'천주의 모친'의 삶과 그 이름이 지닌 깊은 신비를 현실화하는 위대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1083. 사명! 이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사명은 말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요구합니다. 일치와 진리, 기쁨 안에 뿌리내리고 무엇보다 애덕 안에 뿌리를 내려, 애덕 그 자체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지칠 줄 모르는 애덕, 끝없이 펼쳐진 대양의 위력 앞에 놀라지 않는 애덕 말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 안에 머물지 않으며 무한으로 시선을 고정  
한 채, 오직 그리스도와 영혼들 안에 휴식을 누릴 것을 요구합니다.

1084.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사랑, 생명의 사명을 완수하  
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자기를 잊고, 자신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잊혀진 채 살아야 합니  
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이 사랑 안에 단련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  
니다.

모든 것이 복음이 되고, 우리 삶이 복음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철저히 복음에 동화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점령되며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도원이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다면...! 말보다는 삶이 되고, 행위  
보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복음 자체가 될 수 있다면...!

1085. 그대의 삶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다면 이 얼마  
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평화이십니  
다. 자녀들을 위해 그분의 평화를 흠쳐 내십시오. 그분 안에 세상 모든  
이를 위한 평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서 그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려면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1086. 대부분 별 것 아닌 사소한 일로 소통이 단절됩니다. 혈전증이 생  
기면 혈액 덩어리로 막힌 부위에 마비가 일어나고 전신 혈액 순환에 장  
애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덩어리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토록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신비체의 신비여!

그대는 성덕의 작업장에 들어왔습니다. 마비되지 마십시오. 그대를 위  
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은 심각하고, 풍요롭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

님의 계획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통이 단절되기 전에 차라리 그대 자신을 부수십시오. 필요하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그대를 태우십시오.

1087. 한가지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영혼, 하느님을 향해 곧장 날아오르는 영혼이 있을 때, 지상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영원의 공간, 사랑의 공간, 성덕의 공간을 창출해 냅니다. 우리 삶의 공간을 정화시키고 들어 높이고, 승화시킵니다.

이제 나의 비밀을 알려 주었으니 조용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정상을 정복한다면 그대와 수도원 주위는 온통 불바다가 되고 그 불은 온 땅을 불사를 것입니다.

1088. 세상은 빛을 등지고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관상생활로부터 빛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나와야 합니다. 온 세상을 밝히고, 하느님의 평화로 감싸주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구원하는 그분의 시선으로 감싸주는 폭포수가 흘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관상생활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정화의 숨결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관상은 구원의 위대한 힘입니다.

1089. 우리도 알다시피 단순히 명상하는 생활과 교회법상의 관상생활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관상생활은 깊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오직 관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관상자는 자신의 눈길과 생명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못박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1090. 관상자는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일선에서 싸우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심장은 결코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중단 없는 사랑의 신비를 살아야 합니다. 관상자의 영혼의 보이지 않는 지평선은 밤이고 낮이고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091. 관상 성소는 모든 성소의 총체입니다.

관상자는 세상 모든 이의 삶을 자기 영혼 안에 끌어 안기를 꿈꿉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삶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관상자의 영혼의 은밀한 심장 박동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명이나 선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92. 관상자의 사명은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존재의 마지막 부분까지 파고 듭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관상의 삶과 서원의 삶이 각각 따로 놀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강하게 일치되어 우리 안에 새 인격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과 하나되는 신비스런 정복으로 자신을 내던진 영혼 안에 형성되는 깊고 풍요로운 인격입니다.

이는 어느 모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의 보화를 담기에는 이 지상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1093. 관상자는 자신의 성소가 모두의 것이고,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또 알아야만 합니다.

이 우주적인 성소 앞에 아무 것도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간택하시어 농도 짙은 관상의 영역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

다. 그 신비스런 영역을 불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이 그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셔야 합니다.

관상자는 그의 온 존재가 하느님의 것이 되도록 불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속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살아있는 선물이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시대와 나라의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선물입니다.

관상자의 영혼에는 전 인류의 감동적인 역사가 불로 새겨져 있습니다.

1094. 관상자는 밀도 짙은 외딴 곳에 살도록 불림 받았습니다. 거기, 하느님 신비로 가득 찬 숲에서 신비스런 단어가 들려 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관상자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관상자가 관상하기를 멈춘다면, 이 세상에 그를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갈 권리조차 잃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관상만이 그의 존재에 충만한 의미를 줍니다.

흠송하는 침묵 속에 기도와 사랑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삶의 유일한 의미를 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095. 우리의 삶으로 관상생활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관상생활은 하나의 도피가 아니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도피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문제들로부터, 삶의 무게로부터,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관상생활은 단지 도피가 아닌 것을 넘어 하나의 만남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을 마주하러 나가고, 무엇보다 자모이신 성교회의 어깨 위에 지워진 모든 무게를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1096. 봉쇄는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훨씬 더 넓고 위대하고 한없는

지평선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닌 모든 가능성과 그 안에 일어나는 온갖 반응과 감정들을 적시합니다. 그 이 때 봉쇄는 순교의 차원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097. 관상생활이 원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이 저를 흥분하게 합니다. 모든 반경이 이 중심점에 이르고, 그 점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원에 있는 모든 반경이 이 점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관상자는 작은 먼지요 티끌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안에 얼마나 큰 강함이 깃들어 있는지...! 모든 이를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그의 마음을 찾습니다. 관상자의 마음은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 없는 고정된 한낱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한지요! 모든 것이 만나고 모아지는 집합점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이 점을 찾고 그 안에서 위로와 관심, 아늑한 휴식처와 든든한 피난처를 만나게 됩니다.

1098. 달을 발견하고 정복하는 이 시대에 달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의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함과 자유, 완전한 가난 안에 계시는 그 신비스런 하느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바로 거기서 하느님이 기다리십니다. 오직 그 곳에서만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있을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1099. 승복하여 고통에 떨어지는 이, 사랑과 고통으로 죽어 가는 이, 지극히 높은 이상에 자신을 바쳐 충만해진 이, 오직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의 위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100. 그분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충실한 증언자이십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당신의 증언자로 삼으신 그분의 신뢰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101. 그대의 증언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대의 삶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세상 모든 형제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요?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실존적이며 살아 있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 아닌 모든 것에서 비워진 삶,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1102. 사람들은 우리 증언은 실존적이며 생명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하고 올곧은 삶을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며 거짓 없고 진실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 투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증언은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신을 요구 합니다

1103.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언! 삶과 증언, 목숨을 걸고 투신하는 증거자. 말없이 삶으로...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참으로 강하고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하느님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1104. 지금 그대는 증거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대에게 증거적 삶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증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1105. 그대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을 그대의 눈과 입술의 창을 통해 뿜어 내십시오. 그대의 증언은 생생한 복음의 체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1106. 살아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대 곁을 지날 때마다 그대를 지켜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그대 안에 남겨 놓은 향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스런 현존의 성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1107. 우리의 증언은 용감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수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온유함에, 저 산상수훈의 깊고 깊은 신비 안에 있습니다.

1108. 섬세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하느님의 생명을 재현하고자 한다면 사랑 안에서 더욱 섬세해져야 합니다. 내외적으로, 무엇보다 내적으로 섬세해져야 합니다. 그 섬세함은 안으로부터 흘러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이가 마실 수 있기 위해서는 증언은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기를...(마태11, 6)"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1109. 그대의 삶이 관상생활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상생활이 활력과 열정, 진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십시오

관상생활의 위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1110.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가장 고귀한 사명이 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흠숭하는 관상의 사명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재현하고, 그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지새우신 그 기나긴 밤들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명에 성실하십시오.

1111. 수도원은 사막을 횡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햇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철흑 같은 밤을 밝히는 빛나는 불! 모든 이를 위한 공현. 수도원은 중단 없는 주님의 공현 축일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1112.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불이라면, 우리의 삶은 불꽃을 내며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안됩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113.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삶! 증거적 삶! 투신의 삶!

이 투신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영혼과 육신, 생명과 죽음, 기쁨과 고통...! 이는 드러나지 않지만 큰 영향력을 지닌, 중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신비스런 삶입니다.

1114.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산업 시스템이 정지되지 않으려면 저수지마다 가득, 가득 차 있어야겠지요. 봉헌된 영혼들, 무엇보다 봉쇄 안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이 소중한 저수지들입니다. 세상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저수지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1115. 참으로 소중한 관상생활! 우리가 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시다. 또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적 수호자들임을 증거해 보입시다.

1116. 하느님의 본질에는 일치와 진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시듯 이것들도 영원합니다.

수도원 깊은 곳에는 하느님의 신비에서 흘러 나오는 애덕의 화산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일치와 진리, 무한한 기쁨의 삶이 자연스레 싹터 나와야 합니다.

생명이요 사랑이요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인 하느님으로부터 양분을 취하고 그 하느님께 열정적으로 투신하는 깊이 있고 강인한 삶!

이 일치와 진리, 기쁨이 모든 형제들에게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우리 기쁨은 진실하고, 우리의 일치는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1117. 책임감 있게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여생을 농도 짙게 내어주십시오. 하느님은 참나이며 동시에 영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느님이 꿰뚫고 지나가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1118.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경기장에서 죽어 가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메시지를 증언하도록 봉헌되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책임을 진다면 이 증언을 지켜가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잠들어서는 안됩니다.

1119. 우리가 이미 투신한 모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 수도 있고 대강 살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투신하십시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투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어야 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용기와 자기 잊음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생각하는 동안 하느님과 형제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1120. 언제나 깨끗한 밀알, 열매 맺힌 이삭. 수도원의 빵이 되십시오. 마치 모든 책임을 그대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그 무게를 느껴 보십시오.

1121. "아, 하느님께서 하늘을 찢으신다면..." 그대 삶의 신비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대에게 맡겨진 책임의 깊고 깊은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봉헌생활이 무엇이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늘이 찢어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그대 어깨 위에 온 인류를 짊어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서 죽을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오직 교회의 무게를 짊어지길 원할 것입니다.

그대 어깨에 상처가 나도록 형제들의 무게를 짊어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수도원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 또한 하느님께서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가게 하신 수많은 영혼들의 무게를 그대 어깨 위에 지십시오. 그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1122. 매일매일 더욱 투신하고, 더 많이 내어주고, 자신의 이상을 끝까지 추구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상을 낮추거나 완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이 견고하고 살아있는 바위 같아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 깊은 신비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1123. 하느님은 축성된 영혼들이 자신의 말과 행위와 삶에 큰 책임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1124. 지금 세상은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삶이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대의 삶에 깊이가 있다면... 보다 더 큰 사랑의 풍요로움을 지니고, 고통을 더 잘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대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라십니다.

1125.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저 반항에 찬 외침들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1126. 책임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그대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날은 수도원에게도 그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수도원이 전적으로 그대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야훼의 종처럼 그대의 어깨를 내어 놓으십시오. 그대 어깨 위에 수도원의 사랑과 고통, 생명과 희망, 굳셈과 증언의 무게를 짊어 지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기댈 수 있도록 그대의 삶을 내어 놓으십시오. 사실 그대가 아니라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용감 하십시오. 수도원의 무게에서 도피하지 말고,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죽으십시오. 땅에 떨어져 죽을 준비가 된 밀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밀밭에서 자신을 잃을 때,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1127.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일과 휴식, 생명과 죽음, 기쁨과 즐거움, 시간과 영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

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해서 신비를 요구하고, 내어줌을 요구하며 해방을 요구합니다.

1128.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지금은 새로운 책임을 끌어 안을 시간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중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무게를 느껴 보십시오. 그대가 부서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 혈관에 흐르는 피로, 그대의 삶 전체로 증거하십시오.

모두에게 의지하십시오. 또한 모두가 그대를 도와 줄 것입니다. 동시에 마치 수도원 전체가 그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각자 이렇게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대와 더불어 당신 홀로 하시듯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치와 사랑의 기적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셈의 기적을 그대 안에서 이루어 내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1129. 기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십시오.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십시오.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그대 삶의 모든 것이 교회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1130. 그대에게 전염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전염력으로 사랑과 기도, 기쁨과 평화를 온 세상에 전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보다 침묵을 전염시키십시오. 기도하는 침묵, 침묵하는 기도! 이 침묵이 수도원을 가득 채워 수도원이 생명으로, 하느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용기를 내십시오. 이 거룩한 전염 사업에 자신을 투신하십시오.

1131. 종치는 일이 그대가 맡은 책임입니다. 종소리가 이렇다면 그 종을 치는 영혼의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대는 기쁨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밤 하늘을 가르며 은은히 퍼져나가는 침묵의 소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대가 부르는 종소리에 하늘은 땅을 내려다 보고, 땅은 하늘로 시선을 들어올립니다.

1132. 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상 생활이 더욱 충만하고 활기찬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광채와 활기를 잃어버린 암울한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에게 맡겨진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1133. 그대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대를 바라보면, 온 세상이 무한하신 하느님의 끝없는 지평선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눈은 절대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초월적인 하느님과 그분의 영원성에 대한 깊고 고요하며 명백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시선이 오직 빛과 기쁨, 사랑만을 전해 주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대리점이 되십시오. 모든 이들이 그대에게서 하느님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목마름에 물을 주십시오.

1134.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대 존재의 마지막 구석까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소한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합니다. 이는 진실한 증언이 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침묵 중에 건네는 말 한마디, 향구한 미소, 투쟁하여 얻은 부드러움, 기도하는 침묵, 사랑으로 내어주는 하루, 깊은 책임감과 생명의 친교 속에 바쳐지는 찬미...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목숨을 다해, 열렬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수도원은 진면목을 갖추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